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I)의 妥當化 研究

李義柱*·高炳熙*·宋一炳*

The Study on The Validity of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I)"

Eui Ju Lee·Byung Hee Ko·Il Byung Song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Orid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an objective classification method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hich divides people into 4 groups of constitution and presents comprehensively physiology, pathology, diagnosis, therapy and recuperation regarding each constitution.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 was administered to 328 inpatients at Kyung Hee Oriental Medicine Hospital. Data was collected during 10 months from June 1994 to Mar. 11, 1995.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crosstabs, variation analysis, and discrimination analysis. The analyzing program was SPSS PC+ V4.0.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crosstabs, variation analysis, and discrimination analysis. The analyzing program was SPSS PC+ V4.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of each group scales through variation analysis. The questions of each group had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tic discrimination abilities

2. The diagnostic discrimination abilities(Hit-ratio=56.10%) of the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I) were found to have over 20% improvement than the propotional chance criteria(33.3%), Especially, Hit-ratio for Soum-In(63%) was higher than that of SoYang-In(55%) and

* 경희대학교 사상의학과

Taëum-In(56.3%).

3. Through discrimination analysis on good questions of each group, the diagnostic discrimination abilities of the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I) was 57.93%.

4. This would be on the ground that the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I) could be used as a tool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 緒 論

東武 李濟馬(1837~1900)는 『格致藁』에 이어 『東醫壽世保元』(1894)을 完成하여 四象體質醫學論을 定立함으로써 體質醫學의 실제 臨床的 運用이 胎動하게 되었다.

東武는 『東醫壽世保元』¹⁶⁾¹⁸⁾²¹⁾에서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棄仁而極慾者 名曰 貧人'라 하여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으로 區分으로 四象人을 定義했다.

이러한 四象人의 體質辨證 方法論에 關하여 朴¹⁰⁾의 頭部觸診法, 李¹⁵⁾의 乳房 및 腸骨尺度法, 太極鍼法, 權⁸⁾의 乳臍尺度法, 朴¹¹⁾의 十種鑑別法, 權⁹⁾의 八體質鍼法과 診斷脈法, 權⁷⁾의 薄荷·龍腦·丁香을 利用한 藥診法, 梁¹⁴⁾의 免疫血液學的 鑑別法, 許²²⁾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關한 研究가 發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는 心理的, 精神的 要素가 缺如되어 있고 실제로 臨床에 適用하기에는 不足한 面이 많고, 『東醫壽世保元』의 內容과 얼마나 一致하고 있는가 하는 面이 再考되어야 할 事項으로 남아 있다.

또한 『東醫壽世保元』을 根據로 肉體的 體形과 精神的 氣質을 包括한 自己報告式 設問調查方式을 導入한 辯證 方法論 研究로 高⁴⁾⁵⁾의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I)과 金⁹⁾의 四象體質分類檢査

(QSCC)¹⁷⁾¹⁹⁾가 있다. 이러한 設問紙調查 方法은 對象者의 體質을 正確하게 反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大略的인 水準과 分類등의 目的으로 既存의 臨床心理學科와 神經精神科에서 心理分析을 爲해 效果的인 方法으로서 널리 使用되고 있다.

本 研究는 體質鑑別의 客觀的인 基準을 마련하기 爲해 問項形式의 檢査方法으로 만들어진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I)의 臨床活用 價値와 體質鑑別을 爲한 情報提供의 寄與度를 알아 보고자,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I)를 利用해 1994年 6月부터 1995年 3月 11日까지 약 10個月間 慶熙醫療院 附屬 韓方病院 四象醫學科에 來院한 一般患者를 對象으로 設問調查를 實施하고, 이들로부터 나온 結果를 統計分析하여 몇 가지 結論과 多少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研究設計

本 研究는 非實驗的 研究(non-experimental design)로 四象人의 體質鑑別을 爲한 設問調查研究이다.

2.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I)

高³⁾⁴⁾⁵⁾는 1985年 '四象辯證論 小考'에 이어

1987年 四象體質辯證 方法論 研究의 基礎作業으로 基本作業으로 基本設問紙를 作成하였다. 基本設問紙는 理性的 接近方法으로 製作된 自己報告式 體質辯證 方法으로 『東醫壽世保元』에 根據하여 調查問項을 構成하였다. 基本設問紙의 調查問項은 다음과 같이 構成되어 있다.

(1) 全體의 特徵

- ① 外貌(問項 1-3)
- ② 氣質 및 性格(問項 4-11)
- ③ 其他: 步行狀態(問項 12), 發汗與否(問項 13), 飲食의 溫冷嗜好(問項 14), 飲食의 嗜好(問項 15-16)

(2) 部分의 特徵

- ① 生理的 側面: 面貌, 眼, 胸部, 腰部, 四肢, 皮膚, 音聲, 大小便(問項 16-26)
- ② 病理的 側面: 體質證, 體質病證(問項 27-28)

그 후 大學生 670名을 對象으로 基本設問紙를 利用해 設問調查를 實施해 四象體質分布(少陰人 32.69%, 少陽人 29.25%, 太陰人 25.22%, 太陽人 1.79%, 其他 11.04%) 및 再現性(63.2%)을 報告한 바 있다.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1)는 氣質과 性格의 調查問項을 體質別로 묶어 測定基準의 모호함을 克服하고, 各 問項의 順序를 ①太陰人 ②少陰人 ③少陽人 ④太陽人 ⑤其他로 修整하고, 問項의 構成을 再編成한 것이다.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1)는 다음과 같이 構成되어 지금 現在 使用되고 있다.

(1) 肉體의 特徵

- ① 外貌(問項 1-3)
- ② 步行狀態(問項 4), 發汗與否(問項 5)
- ③ 面貌, 眼, 胸部, 腰部, 四肢, 皮膚, 音聲, 大

小便(問項 6-15)

(2) 體質證(問項 16), 體質病證(問項 17)

(3) 精神의 特徵

- ① 太陰人의 氣質 및 性格 13項目(問項 18)
- ② 少陰人의 氣質 및 性格 13項目(問項 18)
- ③ 少陽人의 氣質 및 性格 13項目(問項 18)
- ④ 太陽人의 氣質 및 性格 14項目(問項 18)

(4) 飲食: 飲食의 嗜好(問項 22-23), 飲食의 溫冷嗜好(問項 24)

3. 研究對象 및 資料收集期間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1)의 妥當度 研究를 위하여 慶熙大學校 附屬 韓方病院 四象醫學科에 來院한 一般患者 中 韓方 專門醫에 의하여 體質診斷을 받고 治療중인 者를 對象으로 하였고, 體質診斷은 『東醫壽世保元』의 기준 및 臨床經驗에 根據하였다.

設問紙에 應答이 可能한 對象者를 選擇하여 調查에 應하겠다는 同意를 얻은 328名의 患者를 對象으로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1)를 實施하였다. 對象者 中 太陰人 128名, 少陰人 100名, 少陽人 100名이고 太陽人은 없었다.

資料收集期間은 1994年 6月부터 1995年 3月 11日까지 약 10個月이 경과되었다.

4. 資料分析 方法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1)의 妥當度를 研究하기 위해 spss pct v4.0 分析프로그램¹¹⁾²⁾²⁰⁾을 利用하였다.

個別 集團의 差異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檢證을 實施하였다.

또한 診斷正確率을 檢證하기 위하여 判別分析을 實施하였다.

Ⅲ. 研究結果 및 論議

1. 研究 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1) 性別, 年齡, 身長, 血液型, 體重, 肥滿指數, 肥滿度

本 研究에 포함된 事例들의 性別, 年齡, 身長, 血液型,¹³⁾ 體重, 肥滿指數¹, 肥滿度²의 分布는 表1, 表2, 表3, 表4, 表5, 表6, 表7에 提示하였다.

[表 1] 性別

性別 (名)	女子	男子	Total
Count	139	189	328
Raw Pct	42.4	57.8	100.0

表1에서 性別에 따른 分布를 보면 女子가 139名으로 42.4%이고, 男子가 189名으로 57.6%로 나타났다.

[表 2] 年齡

AGE (4)	10	11	21	31	41	51	61	71	81	91	Total
Count	1	8	23	47	82	98	44	15	1	1	320
Row Pct	0.3	2.5	7.1	14.7	25.7	29.0	13.7	4.6	0.3	0.3	100.0

表2는 10大別 年齡分布를 나타낸 것이다.

[表 3] 身長

Height (cm)	145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Total
Count	15	27	68	63	71	42	11	3	1	1	1	302
Row Pct	5.0	9.0	22.4	20.8	23.5	13.9	3.5	0.9	0.3	0.3	0.3	100.0

表3은 身長의 分布를 나타낸 것이다.

[表 4] 血液型

血液型	A	B	AB	O	합
Count	90	72	41	82	285
Raw Pct	31.6	25.3	14.4	28.8	100.0

表4는 血液型別 分布를 나타낸 것으로 A型은 90名으로 31.6%, B型은 72名으로 25.3%, AB型은 41名으로 14.4%, O型은 82名으로 28.8%이다.

[表 5] 體重

Weight (kg)	40	45	50	55	60	65	70	75	80	90	95	100	125	130	Total
Count	2	14	32	44	69	61	42	28	7	1	2	1	1	1	305
Row Pct	0.6	4.6	10.5	14.4	22.6	20.0	13.8	9.2	2.3	0.3	0.7	0.3	0.3	0.3	100.0

表5는 體重의 分布를 나타낸 것이다.

[表 6] 肥滿指數

비만 지수	75.01	85.00	90.00	95.00	100.00	105.00	110.00	115.00	120.00	125.00	130.00	140.00	145.00	150.00	160.01	Total
Count	3	12	10	24	22	43	53	37	38	24	13	9	2	2	0	296
Row Pct	0.9	3.9	3.0	7.8	7.1	13.9	17.7	11.8	12.6	7.8	4.1	2.8	0.6	0.6	0	100.0

表6은 肥滿指數의 分布를 나타낸 것이다.

1. 肥滿指數 = (實測體重 / 標準體重) × 100

標準體重 : 카프라변법¹²⁾

身長160cm以下일 때 標準體重 = (身長cm - 105) kg

身長160cm以上일 때 標準體重 = (身長cm - 110) kg

2. 肥滿度¹²⁾

a. 肥滿指數 120以上 : 過體重(肥滿)

b. 肥滿指數 80-120 : 正常體重

c. 肥滿指數 80未滿 : 低體重

[表 7] 肥滿度

肥滿度	低體重	正常體重	過體重(肥滿)	Total
Count 2	241	55	298	
Raw Pct	0.7	80.9	18.5	100.0

表7은 肥滿度別 分布를 보면 低體重은 2名으로 0.7%, 正常體重은 241名으로 80.9%, 過體重은 55名으로 18.5%이다.

2. 세 集團의 體質尺度別 變量分析

『東醫壽世保元』을 根據로 臨床한 韓方 專門醫가 診斷한 集團의 結果와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 (1)를 통한 體質尺度³⁾에 대한 平均과 標準偏差 및 F-檢證 結果는 表5와 같다.

이 結果를 살펴보면 少陽人集團이 다른 두 集團보다 가장 큰 離脫 點數를 보인 것은 少陰點數이고, 그 다음이 少陽點數였다. 太陰人集團이 다른 두 集團보다 가장 큰 離脫 點數를 보인 것은 少陰點數였다. 따라서 本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1)에 수록된 問項의 診斷判斷력이 少陰人에 偏重된 短點을 갖고 있다.

各 點數별로 살펴보면, 太陽點數에서 少陰人集團은 <0.01 水準에서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少陽點數에서 少陽人集團은 P<0.01 水準에서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太陰點數에서 太陽人集團은 P<0.01 水準에서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少陰點數에서 少陰人集團은 P<0.01 水準에서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이러한 結果를 미루어 볼 때 四想辯證內容 設問調查紙(1)로 四象體質을 豫測을 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하겠다.

[表 8] 세 集團의 體質點數別 平均과 標準偏差 및 F-檢證 結果

診斷된 體質	少陽人 N=100	太陰人 N=128	少陰人 N=100	F值	備註 scheffe 檢證
太陽點數	9.8050 (3.0993)	8.8281 (2.4442)	8.8100 (2.4657)	4.7407 **	少陽 > 少陰, 太陰
少陽點數	11.4500 (3.1738)	9.4570 (3.1329)	9.3300 (2.8852)	15.5015 **	少陽 > 少陰, 太陰
少陰點數	12.6100 (3.3669)	12.7266 (3.1999)	15.2550 (3.3466)	21.3190 **	少陰 > 少陽, 太陰
太陰點數	10.5250 (2.6528)	12.3281 (3.4169)	10.0350 (2.8224)	18.5825 **	太陰 > 少陰, 少陽

** : P<0.01 N=對象者數, 平均, ()안은 標準偏差

3. 體質鑑別을 爲한 體質點數의 判別分析

(1) 體質點數의 絶對的 크기에 의한 體質 鑑別

體質點數을 絶對的 크기에 의해 體質을 鑑別할 때의 結果는 表6에 나타나 있다. 少陽人이 設問紙에 의해 少陽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34.4%이고, 少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少陰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83.0%이다. 平均正確判斷率은 50.8%이나 少陽人이 設問紙에 의해 47%가 少陰人으로 判別되고, 太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53.9%가 少陰人으로 判別할 誤診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方式의 體質鑑別은 少陰人에게 있어서 높은 正確率을 가져오지만 다른 體質에 있어서는 判別의 誤診을 범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3. 以下 體質點數라 함

[表 9] 體質點數의 絶對的 크기에 의한 判別分析

結果

設問紙에 의한 體質鑑別 \ 診斷된 體質	結果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合
太陽人	7 63.6 7.0	3 27.3 2.3	1 9.1 1.0	11 3.4
少陽人	35 63.6 35.0	12 21.8 9.4	8 14.5 8.0	55 16.8
太陰人	11 17.5 11.0	44 69.8 34.4	8 12.7 8.0	63 19.2
少陰人	47 23.6 47.0	69 34.7 53.9	93 41.7 83.0	199 60.7
合	100 30.5	128 39.0	100 30.5	328 100.0

(2) 體質點數의 相對的 크기에 의한 體質鑑別

그러면 體質點數를 相對點數⁴⁾로 換算하여 가장 큰 값을 體質判定에 適用했을때 나온 結果는 表7과 같다.

그 結果를 살펴보면, 少陽人이 設問紙에 의해 少陽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45.0%이고, 太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太陰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40.6%이고, 少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少陰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55.0%로 絶對的 크기에 의한 體質鑑別에서 少陰人 偏向을 지향하거나 하나 平均正確判別率은 46.86%程度 밖에 안 되어 다음 判別式의 利用이 必要하게 되었다.

[表 10] 體質點數의 相對的 크기에 의한 判別分析

結果

設問紙에 의한 體質鑑別 \ 診斷된 體質	結果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合
太陽人	31 43.7 31.0	21 29.6 16.4	19 26.8 19.0	71 21.6
少陽人	45 51.1 45.0	26 29.5 20.3	17 19.3 17.0	88 26.8
太陰人	12 16.4 12.0	52 71.2 40.6	9 12.3 9.0	73 22.3
少陰人	12 12.5 12.0	29 30.2 22.7	55 57.3 55.0	96 29.3
合	100 30.5	128 39.0	100 30.5	328 100.0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46.86%

(3) 判別式에 의한 體質鑑別

體質點數를 分析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判別式을 適用하고, 그 結果 表8에 提示하였다.

Fisher'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s

少陽人判別式 A=0.7082231×太陽+0.9031093
×少陽+0.7596919×太陰+
1.143607×少陰-20.94930

太陰人判別式 B=0.6078406×太陽+0.6870473
×少陽+1.015077×太陰+
1.126290×少陰-20.45427

少陰人判別式 C=0.6629268×太陽+0.7149276
×少陽+0.7264943×太陰+
1.380049×少陰-21.52545

判別方法: 判別式 A·B·C中 가장 큰 것의 體質을 取하여 判定한다.

4. 相對點數=50+(體質點數-平均)/標準偏差×10

分析結果에 따르면 少陽人이 設問紙에 의해 少陽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56.05이고, 太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太陰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50.8%이고, 少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少陰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63.0%이다. 平均正確率은 56.10%로 위의 方法보다 意味있게 나오며 偶然確率 33.3%에 비해 22.8%의 增進을 보여 四象體質 分類를 위해 充分한 情報 提供의 價値가 있음으로써 客觀的 設問調査로서의 有意性을 示唆하고 있다. 그리고 表6과 比較하여 少陽人은 19%, 太陰人은 16.4%의 判斷正確率을 上升시켰다.

[表 11] 體質點數를 利用한 判別分析 結果

設問紙에 의한 體質鑑別	診斷된 體質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合
少陽人	56 56.0%	24 24.0%	20 20.0%	100
太陰人	37 28.9%	65 50.8%	26 20.3%	128
少陰人	21 21.0%	16 16.0%	63 63.0%	100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56.10%

(4) 反應頻度率을 考慮한 判別式

다른 體質과 差異있는 傾向이 있거나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差異가 있는 問項은 表11, 表12, 表13의 問項을 아래 判別式을 適用하고 分析한 結果는 表9에 提示하였다.

그 結果를 살펴보면, 少陽人을 設問紙에 의해 少陽人으로 判別할 確率은 55.0%이고, 太陰人을 設問紙에 의해 少陰人으로 判別할 確率은 63.05로 分析되고 平均正確率은 57.93%로 위의 體質點數에 의한 判別分析 平均正確率을 1.83% 上升시켰다. 絶對判別, 判別分析, 反應頻度率을 考慮한 判別分析의 比較는 表10에 제시하였다. 絶對的으로 東醫

壽世保元을 根據로 하여 問項適格度를 問項의 追加와 反應頻度率이 낮은 問項은 體質의 特徵에 맞는 적절한 表現이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Fisher'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s

少陽人判別式 $A = 1.290515 \times \text{少陽} + 0.6974999 \times \text{太陰} + 0.8869992 \times \text{少陰} - 12.01769$

太陰人判別式 $B = 1.025936 \times \text{少陽} + 1.133232 \times \text{太陰} + 0.8469980 \times \text{少陰} - 12.26834$

少陰人判別式 $C = 1.039728 \times \text{少陽} + 0.6957379 \times \text{太陰} + 1.154492 \times \text{少陰} - 12.77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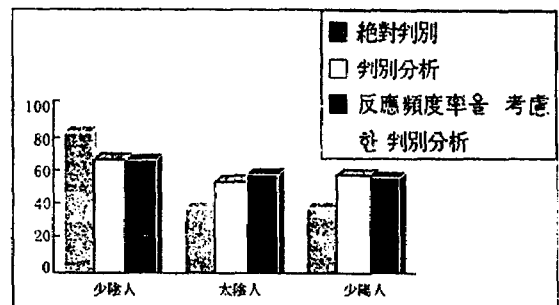
判別方法: 判別式 A·B·C中 가장 큰 것의 體質을 取하여 判定한다.

[表 12] 反應頻度率을 考慮한 判別分析 結果

設問紙에 의한 體質鑑別	診斷된 體質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合
少陽人	55 55.0%	23 23.0%	22 22.0%	100
太陰人	30 23.4%	72 56.3%	26 20.3%	128
少陰人	19 19.0%	18 18.0%	63 63.0%	100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57.93%

[表 13] 絶對判別, 判別分析, 反應頻度率을 考慮한 判別分析의 比較



[表 14] 太陰尺度의 反應頻度率이 높은 問項

番號	問項 內容	反應頻度率 / 問項適格度
2	골격이 굵고 살이 찐 편이다.	41.7 ***
3	허리와 옆구리	23.4
4	걸음이 느리고 무거운 걸는다.	32.8 ***
6	얼굴의 윤곽이 뚜렷하고 의젓하다.	37.5
8	이목구비가 크고 입술이 두텁다.	32.8
9	눈빛이 밝지않고 침침하다.	42.2
10	넓고 잘 발달되었다(비단형)	28.1
16	가슴이 두근거린다.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아프다.	55.5 *** 61.7
17	가슴이 편다. 감기 변비 갈증	31.3 30.5 30.5 28.1
18	① 과묵한 편이다. ② 매사에 신중하다. ⑦ 인내심이 많다. ⑧ 매사에 귀추를 보고 난 후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될 경우 행동에 옮긴다. ⑨ 평소 짐작은 편이나 음흉한 면도 있다.	36.7 * 68.0 60.2 *** 46.1 33.6

*: P<0.05 ** : P<0.01 *** : P<0.001

[表 15] 少陰尺度의 反應頻度率이 높은 問項

番號	問項 內容	反應頻度率 / 問項適格度
1	상체보다 하체가 발달되었다.	27.0
2	팔길이 적고 균형이 잡혀있다.	45.0 ***
3	엉덩이	24.0
4	질문절이가 자연스럽고 암전하다.	35.0
5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49.0 **
6	얼굴의 윤곽이 가름하고 둥글다.	49.0
7	황백색이다.	52.0 *
8	눈, 코, 입이 작고 섬세한 편이다.	32.0
9	눈빛이 순하고 눈웃음을 잘 짓는다.	29.0
10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새장형)	35.0 ***
11	손발이 차고 겨울에 잘 뜨지 않는다.	49.0 ***
13	조용한 편이다.	45.0

番號	問項 內容	反應頻度率 / 問項適格度
16	팔다리가 떨린다.	22.0
17	소화이상 신경에민 설사 요통 팔다리에 힘이 없다.	48.0 * 67.0 *** 32.0 * 37.0* 45.0*
19	② 꼼꼼한 편이다. ④ 몸을 움직이는 일보다 앉아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든다. ⑤ 수줍음이 많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다. ⑧ 생각하는 것이 조직적이다. ⑩ 한번 감정이 상하면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 ⑪ 남이 자기일에 간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⑫ 내성적이다.	24.0, 64.0 40.0 30.0, 46.0* 40.0, 36.0 26.0, 55.0 29.0, 65.0 24.0, 61.0*

a:P<0.1 * :P<0.05 ** :P<0.01 ***:P<0.001

反應頻度率이 2개인 것은 앞은 "보통이다"라고, 뒤는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임.

[表 16] 少陽尺度의 反應頻度率이 높은 問項

番號	問項 內容	反應頻度率 / 問項適格度
2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	28.0 ***
3	가슴	29.0
4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	32.0 ***
5	땀을 흘려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다.	43.0 **
11	손발이 따뜻한 편이다.	51.0 **
13	키랑카랑하다.	38.0
20	① 매사에 열성적이다. ② 솔직담백하다. ③ 시작은 잘하나 마무리가 부족하다. ④ 외부일에 치중하여 나 자신과 가정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다. ⑤ 봉사정신이 많다. ⑥ 사무에 밝고 일처리가 신속하다. ⑦ 의협심이 강하다. ⑧ 남의 잘 잘못을 따지기 좋아한다. ⑨ 성격이 급한 편이다. ⑩ 실중을 잘 느끼고 체념을 잘한다. ⑪ 사치를 좋아한다.	49.0 77.0 * 42.0, 34.0 ** 32.0 32.0 53.0a 61.0* 31.0 80.0 * 34.0, 36.0 26.0, 16.0

番號	問項 內容	反應頻度率 / 問項適格度
⑫	과장하기를 잘한다.	27.0, 12.0**
⑬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31.0, 28.0***

a: P<0.1 * : P<0.05 ** : P<0.01 *** : P<0.001

反應頻度率在 2개인 것은 앞은 “보통이다”라고, 뒤는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임.

[表 17] 問項內容에 문제 있는 問項

分析 結果	問項番號	問項 內容
混在되어 있다.	12	당신의 피부는?
	14. ②	말이 많지 않으나 가까운 사이와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15. ②	대개는 변이 무르고 혹은 변비가 있어도 그다지 불편감은 없다.
	16. ③	건강증이 있다.
	④	요통
거의 선택 안 함	17. ③	코피
	18. ⑩	교만하다.
	⑪	욕심이 많다.

IV. 總括 및 考察

分析에서 나타난 結果를 土臺로 研究 對象者의 體質尺度의 妥當性과 體質點數를 利用한 體質判別方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韓方 專門醫가 臨床的으로 診斷한 少陽人集團과 太陰人集團과 少陰人集團이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I)에서 보인 體質點數의 平均과 標準偏差 그리고 세 集團間 平均 差異를 變量分析한 結果를 살펴보면, 太陽點數에서 少陽人集團은 P<0.01 水準에서 有意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少陽人集團은 少陽點數에서 太陰人 및 少陰人集團에 비해 平均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少陽點數에서 少陽人集團은 P<0.01 水準에서 有意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太陰人集團은 太陰點數에서 少陽人 및 少陰人集團에 비해 平均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太陰點數에서 太陰人集團은 P<0.01 水準에서 有意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少陰人集團은 少陰點數에서 太陰人 및 少陽人集團에 비해 平均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少陰點數에서 少陰人集團은 P<0.01 水準에서 有意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이러한 結果를 비루어 볼 때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I)로 四象體質을 豫測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하겠다.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I)에 의한 體質點數로 體質判別시 絶對的 크기에 의해 體質을 鑑別하면, 少陽人이 設問紙에 의해 少陽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35%이고, 太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太陰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34.4%이고, 少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少陰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83.0%이다. 平均正確判斷率은 50.8%이나 少陽人이 設問紙에 의해 47%가 少陰人으로 判別되고, 太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53.9%가 少陰人으로 判別할 誤謬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方式의 體質鑑別은 少陰人에게 있어서 높은 正確率을 가져오지만 다른 體質에 있어서는 判別의 誤謬를 범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體質點數를 相對點數로 換算하여 가장 큰 값을 체질판정에 適用했을 때, 少陽人이 設問紙에 少陽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45.0%이고, 太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太陰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40.6%이고, 少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少陰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55.0%로 絶對的 크기에 의한 體質鑑別에서 少陰人 偏向을 지향하기는 하나 平均正確判別率은 46.86% 程度 밖에 안되어 다음 判別式의 利用이 必要하게 되었다.

體質點數를 分析에 들어가기 前에 判別式을 適用한 뒤 體質判定을 適用했을 때, 少陽人이 設問紙에 의해 少陽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56.0%이고, 太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太陰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50.8%이고, 少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少陰人으로 判別될 確率은 63.05이다. 平均正確率은 56.10%로 위의 方法보다 意味있는게 나오며 偶然確率 33.3%에 비해 22.8%의 增進을 보여 四象體質 分類를 위해 충분한 情報 提供의 價値가 있음으로써 客觀的 設問調查로서의 有意性을 示唆하고 있다. 그리고 絶對的 크기로 體質鑑別했을 때보다 少陽人은 19%, 太陰人은 16.4%의 判斷正確率을 上升시켰다.

다른 體質과 差異있는 傾向이 있거나 統計적으로 有意味한 差異가 있는 問項을 判別式을 適用하고 分析한 結果를 살펴보면, 少陽人을 設問紙에 의해 少陽人으로 判別할 確率은 55.0%이고, 太陰人을 設問紙에 의해 太陰人으로 判別할 確率은 56.35이고, 少陰人을 設問紙에 의해 少陰人으로 判別할 確率은 63.05로 分析되고 平均正確率은 57.935로 위의 體質點數에 의한 判別分析 平均正確率을 1.83% 上升시켰다. 結果적으로 『東醫壽世保元』을 根據로 하여 問項適格度를 높일 수 있는 問項의 追加와 反應頻度率이 낮은 問項은 體質的 特徵에 맞는 적절한 表現이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本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Ⅰ)의 調查 및 分析 課程에서 韓方專門醫에 의해 太陽人으로 分類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分析 過程에서 太陽人에 대한 內容은 施行되지 못하였다.

V. 結論 및 提言

1. 結論

著者는 體質鑑別의 客觀的인 基準을 마련하기 爲해 問項形式의 檢査方法으로 만들어진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Ⅰ)의 臨床活用 價値와 體質鑑別을 爲한 情報提供의 寄與度를 알아 보고자, 慶熙醫院 附屬

韓方病院 四象醫學科 韓方專門醫에 의해 『東醫壽世保元』을 根據로 臨床的으로 診斷된 一般 外來患者 328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查를 施行하였다.

設問調查의 資料를 統計 處理하여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Ⅰ)의 妥當性을 檢討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Ⅰ)는 韓方 專門醫에 의하여 體質 鑑別 診斷을 받은 세 集團의 體質點數別 變量分析 結果, 診斷辨別力이 認定되는 問項들로 構成되어 있다.

2)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Ⅰ)에 의한 體質點數로 體質判別時 絶對的 크기에 의해 體質을 鑑別하면, 少陽人 35%이고, 太陰人 34.4%이고, 少陰人은 83.0%의 判斷率을 갖는다. 平均正確判斷率은 50.8%이나 少陽人이 設問紙에 의해 47%가 少陰人으로 判別되고, 太陰人이 設問紙에 의해 53.9%가 少陰人으로 判別할 誤謬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方式의 體質鑑別은 少陰人에게 있어서 높은 正確率을 가져 오지만 다른 體質에 있어서는 判別의 誤謬를 범하기 쉽다.

3) 體質點數를 分析에 들어가기 前에 判別式을 適用한 뒤 體質判定을 適用했을 때, 少陽人은 56.0%이고, 太陰人은 50.8%이고, 少陰人은 63.0%의 判別率을 갖는다. 平均正確率은 56.10%로 偶然確率 33.3%에 비해 22.8%의 增進을 보여 四象體質 分類를 위해 충분한 情報 提供의 價値가 있음으로써 客觀的 設問調查로서의 有意性을 示唆하고 있다. 그리고 絶對的 크기로 體質鑑別했을 때보다 少陽人은 19%, 太陰人은 16.4%의 判斷正確率을 上升시켰다.

4) 反應頻度率이 높은 問項으로 判別式을 適用하여 分析하면, 少陽人은 55.0%이고, 太陰人은 56.3%이고, 少陰人은 63.0%의 判別率을 갖는다. 平均正確率은 57.93%로 위의 體質點數에 의한 判別分析 平均正確率을 1.83% 上升시켰다.

5) 四象辯證內容 設問調查紙(1)를 利用하면, 四象體質을 豫測할 수 있다.

2. 提 言

1) 一般的 特性를 體質鑑別에 資料로 使用하기 위한 研究가 追後 계속되어야 한다.

2) 反應頻度率이 낮은 問項의 內容은 形態를 變形하거나 다른 表現을 構想하여 信賴度를 높이는 作業을 施行해야 한다.

3) 問項의 適格度에 따른 採點上의 比重 附與 方法을 研究되어야 한다.

4) 問項을 補完하여 問項의 信賴度 檢證이 研究되어야 한다.

5) 資料를 좀 더 늘리고 問項을 補完하여 正確判別率을 높이는 判別方程式의 開發이 계속해서 研究되어야 한다.

6) 設問 調查市 標準集團의 構成에 따른 層化標準別 統計分析研究가 必要하다.

7) 四象人의 體質鑑別은 東醫壽世保元의 人間形成 原理에 의한 醫哲學에 根本을 두고 鑑別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Marija J. Norusis : Advanced Statistics, Chicago, SPSS Inc., pp.1-39, 1986.
2. Marija J. Norusis : SPSS/PC, Chicago, SPSS Inc., pp.153-175, 1986.
3.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辯證에 對한 小考,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Vol.6, No.1, pp.40-47, 1985.
4.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辯證 方法論研究(第二報),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Vol.8, No.1, pp.146-160, 1987.
5.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辯證 方法論研究(第一報),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Vol.8, No.1, pp.139-145, 1987.
6. 權度沅 : 體質鍼에 關한 研究, 서울, 大韓韓醫學會報 二十1號, .32-38, 1966.
7. 權度沅 : 四象鑑別法에 對하여, 서울, 醫林社, 통권97호, .15-20, 1973.
8. 權英植 : 四象方藥合編, 서울, 吉林書院, .37-42, 1973.
9. 金善豪 : 四象體質分類檢査(QSCC)의 妥當化研究, 서울, 大韓四象醫學會紙, Vol.5, No.1, pp.61-80, 1993.
10. 朴奭彥 : 四象頭部觸診法, 서울, 醫林社, 통권147호, pp.62-64, 1982.
11. 朴寅商 : 東醫四象要訣, 서울 吉林書院, pp.3-6, 1974.
12. 徐舜圭 : 成人病·老人病學, 서울, 고려의학, pp.459-461, 1992.
13. 성호경, 이상돈 : 生理學, 서울, 의학문화사, pp.106-108, 1992.
14. 梁基杓 : 類型體質鑑別의 免疫血清學的 研究, 서울, 慶熙韓醫大 論文集, 慶熙大 韓醫科大學, pp.33-45, 1983.
15. 李炳幸 : 針道遠流重磨, 서울, 吉林書院, pp.347-348, 1974.
16. 李乙浩, 洪淳用 : 四象醫學原論, 서울, 壽文社, pp.36-38, 1973.
17. 李廷燦 : 四象體質分類檢査의 準據妥當化 研究(性格要因檢査-16PF와의 比較分析), 서울, 大韓四象學會誌, Vol.5, No., pp.81-98, 1993.
18.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吉林書院, pp.13-14, 1963.
19. 章世圭 :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評價方法의

- 妥當性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20. 채서일, 김범중, 이성근: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학현사, pp.101-122, pp.167-190, pp.276-286, 1992.
21.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性理會出版社, pp.57-59, 1967.
22. 許萬會: 四象人の 形態學的 圖式化를 爲한 研究, 서울, 大韓四象醫學會誌, Vol.1, No.1, pp.29-39, 1989.